

덕유산이 그려낸 한폭의 수채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영하의 날씨로 인해 덕유산 정상인 함적봉(1,614m)에 상고대가 피었다고 밝혔다. 덕유산 정상에 지난달 9일 첫 상고대가 관측됐고, 이달 1일에는 아름다운 상고대가 피며 영롱한 빛깔로 산을 수놓고 있다.



전북비상시국회의, “이달 중순까지 투쟁 나선다”

“최순실 수사 · 박근혜 정권 퇴진”

도내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와 총궐기 대회가 전북의 하늘에 울려 퍼질 전망이다.

전북비상시국회의는 1일 발표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결성선언문'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최순실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내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합해 지난달 31일 결성된 전북비상시국회의는 결성선언문에서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어 받아 직접행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

“12일까지 열게 될 풍남문 광장 촛불집회부터
서울 민중총궐기 참여 · 19일 도민 총궐기 예고”

정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정권퇴진운동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꼬리 자르기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소수자, 생애, 종교계 등 전북지역 각 현장의 모든 도민들이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하도록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5일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12일 서울에서 열릴 민중총궐기 참여와 촛불집회에 이어, 19일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모든 행동에 들어갈 것을 내세웠다.

원광대 교수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5면> 원광대학교 교수 196명은 대학 60주년 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국정문란과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인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과 국정 문란함이 극에 달했다”며 “최순

실이 국정 전반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닌, 국정의 총체적 파탄을 낳은 희대의 폭두각시 인형극 정치를 확인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일파와 국민을 우롱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국정을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했다”며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상황도 초래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3면 “전북대병원 권역으로 취소 대책을”

6면 “신성장동력산업 신규 인력 양성 시급”

16면 귀국 전 최순실의 심경은 자기변명

객사 앞 사거리 600m ‘차 없는 거리’ 만든다

전주시, ‘전주본색’ 운영

문화·생태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열기로

일부구간 어린이장터 개설

전주시 중심도로인 객사 앞 충경로가 시민들을 위해 처음으로 비워진다.

전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객사 앞 사거리에서 다갈로 사거리까지 총경로 600m의 구간의 차량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차가 없는 차도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객사 앞 길 차 없는 사람의 거리(부제 전주본색)’를 운영한다.

그간 관동로와 백제로 등 전주시 주요도로가 태조어진 봉안행렬과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 등 각종 문화·체육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시 통제된 적은 있지만, 차가 아닌 시민들에게 도로를 돌려주는 취지로 차도를 비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차가 사라진 폭 25m, 길이 600m의 도로 위에서는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문화영역에는 한복체험을 중심으로 공예체험과 가을음악회, 거리위의 미술 트리아트, 놀이마당, 주전부리 장터,

길거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생태영역에는 어린이장터, 잔디광장, 생태놀이터, 자전거대어 및 수리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시작을 알리는 풍물패와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한옥마을의 한복바탕을 원도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한복체험행사와 한복퍼레이드, 한복 플래시몹이 진행된다. 또, 핸드메이드시티(수공예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한 공예체험과 늦가을 가을소풍을 느끼게 해줄 길이 60미터에 달하는 잔디광장, 탑상탁구 등이 펼쳐지는 놀이마당, 도로위의 미술 트리아트, 푸드트럭과 함께 하는 주전부리 장터도 열린다.

이와 함께 소수가 패부를 배경으로 4시간 동안 펼쳐지는 가을음악회와 웨딩거리에서 펼쳐지는 런닝맨 게임,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어 경계와 재활용의 의미를 체험할 어린이 장터, 반려동물 가족 찾아주기를 위한 생태놀이터 등 늦가을 객사 앞 도로가 차를 대신해 문화와 생태로 가득 채워진다.

특히 시는 도로의 일정공간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어린이들이 주인이 돼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미와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장터를 개설, 교육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현대, 홈 입장 누적 관중 40만명 ‘눈 앞’

주말 펼쳐질 상주전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창단 이래 최초로 홈 입장 관중 40만명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다.

현재 전북은 리그와 컵을 포함한 전체 누적 관중이 38만9,703명이다. 올 해 평균 관중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상주전에서 무난히 홈 40만 관중 입장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2만3,288명

이상의 관중이 입장한다면 2년 연속 K리그 30만 관중 동원까지 성공하게 된다.

수도권 구단의 전용물로 평가받았던 시즌 전체 누적관중 40만 동원과 리그 30만 관중 동원을 지방구단인 전북이 최초로 달성하게 될 예정이다.

전북은 역사적인 기록을 앞두고 상주전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국과 예두 등 체력이 비축돼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좋은 생각 고추장!



청정원 순창 찰고추장은

- 태양초 100% | 고추장내 고춧가루 11.3% 중
- 현미 100% | 고추장내 현미 20.4% 중
- 천일염 100% | 고추장내 천일염 6.8% 중